퇴직연금 가입자 감소 속에 DC형 가입자는 증가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일본에서는 최근 10년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비롯한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.
  - 일본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최근 10년간 17% 감소하여 2011년 3월 말 기준으로 1,676만 명이 가입중인 것으로 나타남.
  - 이 중에서 장래의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2001년 말 약 2천만 명에서 이후 10년간 35% 감소하여 2011년 3월 말 기준 1,305만 명이 가입되어 있음.
  - 반면, 2001년 12월말 약 9만 명에 불과했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3월 말 기준 371만 명에 이름.

〈표 1〉 일본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가입자 수

(단위: 만 명)

구분	구 퇴직연금		신 퇴직연금		합계
	적격 퇴직연금(DB)	후생연금기금(DB)	신 확정급여형(DB)	확정기여형(DC)	
2001	926(45.8%)	1087(53.8%)	-	8.8(0.4%)	2,012
2010	126(7.5%)	451(26.9%)	727(43.4%)	371(22.1%)	1,676

주: ( )는 비중.
자료: 후생노동성.

-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이후 퇴직연금이 제공되지 않는 고용형태 증가, 신규 고용 감소, 기존 퇴직연금제도 탈퇴,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자 증가 등으로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.
  -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적격 퇴직연금이 2012년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선호하는 확정기여형제도로 상당수 이동하였기 때문임.

(일본경제신문 7/12 뉴스 종합)